



○논강을 시작하기 전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배우는 자로서 마음을 새로이 한다.

넓고 좋은 길 마다하고, 눈독 밟으며 실상사로 든다. 흰한 들관 드문드문 짙푸른 보리밭이 밭길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겨울 보리밭, 천연덕스럽게 푸르다. 저 '대척없는 낙관' 이라니. 민국의 하늘 아래로 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세상'에서도 저런 푸르름이 있는 한 '희망'을 얘기해도 좋을 것 같다.

남원 실상사에는 '학교'가 많다. 하나같이 특별한 학교다.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인 '작은학교', 도회의 삶에 지쳤거나 허한 중이에 새로운 삶을 그리려는 이들이 논밭에서 새 삶을 일구는 '귀농학교', 스님들의 공부 모임인 '화엄결사', 딸과 웃음을 거름 삼는 배움의 마당들이다.

배움! 희망의 싹을 틔우는 데 배움 만한 게 또 있을까. 또한 그것은 그 자체로 더없이 즐거운 일이 아니던가. 화엄결사의 하루 수강생이 되기로 했다. 오전 8시, 공부 모임 답지 않게 장상에 기사까지 갖춘 스님들이 강당에 우뚝하다. 상대한 의식을 앞둔 모습보다 더 눈부시다.



○화엄결사는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화엄학림의 교육과정을 재검토하면서 승가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찾는다.

학문-수행 어우러진 '수행자상' 세운다

실상사 화엄학림 결사 현장



○화엄학림과 연계한 연구소 기능의 화림원에 머물며 결사에 참여하고 있는 스님들. 넓다만 반박되는 걸음이지만 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어린이마냥 즐거워 보인다.

5분 남짓, 논강(論講)에 앞서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 "위없이 높고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기 어렵거늘/이제야 듣고 보고 받아지나니/그 가르침의 참뜻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는 뜻의 개경 계(開經偈). 경전을 펼치면서 그 높은 가르침을 찬탄하는 계송(偈頌)이 나직히 울려 퍼진다.

상강(講)이 끝나자 강당은 두 개의 공부방으로 나누어진다. 한 곳에서는 '화엄학림' 6기 2학년 과정이 화엄 연교 스님의 강의로 진행되고, 또 한 곳에서는 논강 중심의 '화엄결사'가 열기를 더해간다.

화엄결사 대중은 7명. 다섯 분의 비구, 재연(학갑) 해강(준주), 성문 지우, 여공 스님과, 두 분의 비구니 정일, 효림 스님이 정규 구성원이다. 화엄학림 졸업생, 선방 수좌, 강원 강사를 지낸 스님들이다. 전원이 강사면서 학인의 자격으로 참여한다.

이에 더해 청강생 3명. 주지 도법 스님, 총무 중묵 스님, 특별 청강생 서림 스님은 논공적으로 본강생을 압박하며 훈사의 밀도를 높인다. 특히 도법 스님은 본강생들로부터 '본강생보다 더 열성적인 아주 골치아픈 청강생'이라는, 농담을 빙자한 비난(비난)을 듣고 있다.

논강 진행 방식은 강의와 수강이라는 일방적인 형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의 논강 즉 자유로운 토론 방식이다. 변역론 검토 과정에서는 조사 하나를 놓고도 활발한 토론을 벌인

다. 미묘한 사안인 경우 때론 격론으로 이어져 10시까지로 정해진 시간을 넘기기도 하고 오후에 연장전(延戰)을 벌이기도 한다고 한다. 그래도 미진할 경우 대화자를 참학한다는 것이 토론의 원칙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논강 방식을 선택했을까. "부처님께서는 정법을 쇠하게 하지 않는 길을 어떻게 일러 주셨어요. 대승이 보여서 법(Dharma)과 정의에 대해서 자주 토론하라."

결사대중 모두 학인이자 강사 토론식 논강 '열기'...때론 격론 '대중공사, 자랑스런 승가 전통'

대화와 토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열린 전통이지요. 대화와 토론을 통한 탐구, 그리고 대중공사(大衆公事)로 불교의 자랑스런 전통입니다. 이런 전통이 살았을 때, 불교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화엄결사에서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겁니다. 도법 스님

그렇다면 이런 시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승가 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지구 해석에 매달리는 혼고적 방법이 나 강사 중심의 강론에서 벗어나 근본적인가

트침을 이해하고 체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소위 권위자의 경전 번역이나 해석에서 많은 오류를 발견한 것도 소독입니다. 권위에 일방적으로 기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실제로 확인한 것이지요.

많은 한글 번역이 결도는 이유도 경전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얕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본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런 다음에 한글판으로도 이해 가능한 텍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연 스님)

그런데, 이러한 화엄결사의 정신과 공부 방식은 역설적이게도 화엄학림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94년도 조계종 사태 이후 중단 교육 개혁 차원에서 '화엄학림'을 열었습니다. 화엄학 개편-중론-유식-현담-화엄경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도량이었지요.

요. 그런데 지난해 초 7기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위기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학인이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논의를 거듭한 결과 여러 요인이 거론되었습니다. 실상사라는 공간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도 한 원인으로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었고 문제는 복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화엄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강한 흡인력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구태의연, 학인들의 자기혁신 부재, 방법론에 대한 회의 같은 것들이 흡인력 약화의 세합들로 지적되

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5회에 걸쳐 졸업생을 배출하는 동안 기대도 많았는데 이대로 흐지부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결론은 '결사'였습니다. 강사와 학인이 함께 공부 내용과 방법론에 대해 검증하자. 그러면 한 단계 성숙된 승가 교육 모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화엄결사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현대적이면서도 내실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론 개발이 결사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도법 스님)

강사와 수강생이라는 교육의 두 주체와, 교육 여건 마련과 지원의 소임을 맡은 주지 스님까지 한몸이 되어 교육적 실험의 대상이 되고자 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화엄학림의 새로운 길찾기는 끝난 것인가. 공백은 또 있다.

"조계종이 3급 승가고시 자격 요건에 선방 경력 4인거는 명문화해 놓고도 화엄학림과 같은 교육기관에서의 공부 경력은 도외시하기 때문에 뜻있는 학인들도 선뜻 발을 내밀지 못해요. 한국불교 발전에 장애 요인입니다. (해강 스님)

조계종 교육 행정 차원에서 귀담아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2001년 2월에 시작된 '화엄결사'는 2003년 동안기 해제에 맞춘 화엄까지 경학(經學) 탐구와 수행을 연계해 나가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수행자상을 세워갈 것이다.

실상사에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싹'을 본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yjpp@buddhaya.com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간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은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궁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원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도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상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임동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제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이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인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국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콩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
특
히
”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어토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안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백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삼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